

영주귀국 과정에서 드러난 사할린 한인 1세대의 고국지향성 연구

- <귀향 그리고 또 다른 이별>의 촬영자료를 중심으로 -

김연식*
yeondream@hanmail.net

<目次>

- | | |
|--------------------------|----------------------------------|
| 1. 서론 | 4. 연구결과 |
| 2. 선행연구 고찰 | 4.1 영주귀국 선택으로 나타난 고국지향성 |
| 2.1. 사할린 한인의 이주역사 | 4.2 반복된 이산의 고통: 고국지향은 가족
지향으로 |
| 2.2.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에 관한 연구 | 5. 결론 |
|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

주제어: 사할린 한인(Korean in Sakhalin), 강제징용(forced labor), 이산(Separation), 영주귀국(Remigrant), 고국지향성(motherland orientation)

1. 서론

해마다 광복절이 되거나 삼일절이 되면 일제강점기 시절 한민족의 고난과 비극,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많이 방영된다. 사할린 한인들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 소재 중의 하나다. 일본의 식민통치 하에 이역만리 타국 땅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한인들의 절절한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사할린 한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이산의 고통이 다큐멘터리 소재로는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심은 러시아와의 자유왕래가 본격화된 1980년대 말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하지만 사할린 한인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사실 그만큼 활발하지는 못했다.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의 슬픈 역사로 여기고 이들의 삶을 학술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다. 한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할린 한인 관련 자료들이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많이 제한되어 있고 자료 입수 경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문서가 러시아어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도 연구를 어렵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구술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한인 디아스포라 주제와 관련하여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연구도 찾아지고 있는 추세다.

기존의 사할린 연구를 살펴본다면 사할린 한인의 이주 역사, 사할린 한인들의 법적지위와 정치적 문제에 관련된 연구, 그리고 사할린 한인들의 개인적 삶을 통한 구술생애사 연구들이 있다. 특히 수 년 전 부터는 한국으로 영주귀국하여 살고 있는 사할린 한인들을 대상으로 모국으로의 이주 전후 시기에 대한 정체성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박신규, 2014, 박재인, 2014, 이소영·윤황, 2015, 홍웅호, 2018).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일제 강점기 시절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당했던 1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다. 즉 2세대들의 기억과 경험에 의존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할린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할린 1세대는 대부분 사망하였다.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 본격화되던 1930년대 말 이후 1945년까지 사할린에 강제 이주된 이들은 현재 생존해 있을 시 대부분 100세 전후가 된다. 그러므로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직접경험’을 가진 영주귀국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연구자는 20년 전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이들을 취재한 적이 있었다. 러시아 사할린과 한국 안산을 오가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귀향 그리고 또 다른 이별>이었다. 이 작품은 2000년 서울다큐멘터리 영화제 본선작으로 상영된 바 있는데, 총 38분 분량으로 2000년 2월과 6월 사이 한국으로 영주귀국하여 생활하는 사할린 1세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촬영 원본 테잎은 60분 분량으로 총 27개가 있으며 다양한 인터뷰와 증언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연구자는 최근 사할린 관련 연구 논문들을 읽으면서 이 촬영자료들을 분석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보다 생생한 사할린 한인 1세대의 육성으로 그들의 영주귀국 이주사를 기록하고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질곡을 파헤치고 싶은 연구동기를 새로이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된 한인 1세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에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사할린 한인 1세대가 다른 어떤 외국의 한인들보다도 강하게 갖고 있는 모국 귀환에 대한 지향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국지향성이라는 그들의 공통적인 태도가 어떤 연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영주귀국을 둘러싼 반복된 이산의 경험이 그들의 고국지향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연구의 초점을 두려고 한다. 가족과의 이별을 또 한 번 감수한 한국행 이후

그들의 극심한 내적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었는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의 비극적인 삶이 갖는 역사적, 사회학적 의미를 고찰하는 기회로 진행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2.1. 사할린 한인의 이주역사

먼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할린 한인의 이주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이어가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할린 한인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면 흔히들 일제강점기 시절의 강제동원 사실을 떠올린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조선인들을 사할린의 노동력으로 활용하고자 ‘모집’ 혹은 ‘강제징용’의 형태로 이주시켰다. 사할린은 1905년 러일전쟁이 끝난 직후 북위 50도를 기점으로 남쪽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사할린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일본이 전쟁물자로 활용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본토의 일본인 이외에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의 젊은이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사할린 이주 초기에는 모집의 형태로 노동력을 충당했으나 태평양 전쟁 말기로 넘어가면서 강제징용의 형태가 노골화 되었다. 자원자를 모집했다고는 하지만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마을별 혹은 가구별로 인원들이 할당되었고 아버지나 형과 같은 가족을 대신해 남아 젊은이들이 사할린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온 2차 세계대전 말로 접어들면서는 그나마 자원자 모집이 아니라 강제징용의 형태로 바뀌고 말았다. 하지만 모집이든 강제징용이든 일단 사할린으로 이주한 다음의 생활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랜 노동시간과 열악한 생활환경, 노동현장에서의 서슬 퍼런 감시와 감독으로 고통스런 삶이 이어졌다. 사할린 한인들의 고통은 사할린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할린의 강제이주 노동자들 중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자 다시 일본 본토의 큐슈와 이바라키로 강제동원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이중징용’이었다. 이는 또 다른 이산가족을 낳았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 본토로 ‘이중징용’된 아버지와 남편들은 사할린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사할린의 가족들은 기아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장석홍, 2007). 사할린의 한인 노동자들은 일본의 전쟁수행계획에 따라 철저히 인권이 유린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 일본인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무관심 혹은 무성의로 인해 사할린 거주 한인들은 모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거기다 여전히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소련 당국의 필요에 의해 한인들은 사할린에 계속 잔류하게 되었다. 이 당시 한인들은 모두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사할린 남부 코르사코프 항구로 모여들었으나 어느 누구도 모국행 배를 타지는 못했다. 수많은 한인들이 낙담한 채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삼켰다. 그것이 반 세기동안 지속된 모국과의 단절의 시작이었다. 이른바 이역만리 타국에 버려진 사람들이 되어 버린 것이다. 수많은 사할린 한인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과 천대 속에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살았고 소련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인종 차별을 당하며 망향의 한을 품은 채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박승의, 2013).

1950년대 소련과 일본의 협정으로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극소수의 한인들과 그 가족이 일본으로 귀환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절대다수의 한인들은 사할린에 체류하게 되었다. 1958년 일본인 처와 일본으로 송환된 한인 중 박노학은 평생 사할린 한인 귀환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일본사회 지도층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남한의 가족과 사할린의 잔류 한인들의 서신연락을 도모하는 한편 일본의 정계와 시민단체를 움직여 일본정부가 실질적으로 사할린 한인들의 송환을 위해 힘쓰도록 만들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일본의 다나카 전 수상은 재임 중 소련과의 회담이 있을 때 마다 사할린 한인 송환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오일환(2020)은 박노학의 생애를 통해 사할린 한인 귀환운동을 연구하였다. 이른바 사할린 한인과 한국의 가족을 연결한 ‘박노학편지’와 영주귀국을 갈망하던 수 천 명의 사할린 한인들의 명단을 기록한 ‘박노학명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양한 인터뷰와 기록으로 규명하였다. 그리하여 그간 사할린 한인들의 모국 귀환운동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잊혀졌던 박노학의 생애를 새롭게 조명하는 한편 사할린 한인 운동 과정 속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발굴하고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렇게도 열망하던 사할린 한인들의 모국 방문은 결국 1988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귀국도 이즈음부터 개인 단위로 조금씩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2월 경기도 안산에 고향마을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100명에 가까운 사할린 한인들이 대규모로 이주하였다. 이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를 위한 주거지가 마련되었다.

2.2.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에 관한 연구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할린 한인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갈래로 진행되어 왔다. 한인들

의 사할린 이주와 고립의 역사, 법적 지위와 정치적 문제에 따른 각국의 대응 분석, 사할린 한인들의 민족정체성 연구, 영주귀국자를 중심으로 한 생애사 연구 등이 그것이다. 이 단락에서는 서론의 연구목적에 맞추어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텐 옥사나(2010)는 사할린 한인의 민족정체성 연구에서 1세대가 고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착을 가지는 반면, 2, 3세대는 현재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조국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러시아를 고향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1세대의 고국지향성은 후속세대와 상당히 대비된다고 하겠다.

박재인(2014)은 사할린 영주귀국자 한 사람에 대한 생애담 연구를 통해 ‘낮선 고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라는 이산 트라우마가 사할린 한인 후속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전이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한민족이 사는 국가에 대한 욕망이 사할린 1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이되면서 영주귀국에 대한 욕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영주귀국 이후 사할린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나 고국에서의 낯설음이 새로운 이산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의 연구는 사할린 동포들의 이산의 고통을 ‘역사적 트라우마’ 개념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대상은 사할린 한인 2세대였고 그의 가족이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정착한 경우는 아니라서 전형적인 사할린 한인의 범주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다.

이소영과 윤황(2015)도 영주귀국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생애를 기술하였다. 이소영과 윤황은 영주귀국 선택과 사할린 잔류에 대한 응답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그들의 선택과정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영주귀국 선택에 대한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구결과에서 영주귀국 결정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을 일부 다루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홍우호(2018) 역시 사할린 한인의 역사와 삶에 대해 연구하고 이들의 생애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삶의 궤적을 기록하였지만 다소 평면적인 기술에 그치고 있다. 이 밖에 사할린과 중남미에서 모국으로 귀환한 재외한인들의 삶을 비교한 박신규(2019)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이주자의 개인적 위치, 사회경제적 상황, 재외동포 정책의 수용변화 등의 요소에 따라 귀환이주가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사할린 한인 연구의 공통된 한계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대부분 사할린 한인 2세대를 연구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연구대상들이 거의 강제징용 1세대의 자식들로서 출생연대가 대부분 1945년 전후거나 그 이후였다. 이들은 부모세대의 경험을 간접경험하면서 부모세대와 비교적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부모인 사할린 1세대의 삶을 증언하면서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직접경험’은 아니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할린 한인 1세대의 육성으로 영주귀국 당시의 상황과 가족이산에 대한 고통을 기록하는 것은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에 있어 새로운 학술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착안해서 본 연구는 2000년 사할린 한인들의 대규모 영주귀국 당시 1세대의 인터뷰를 직접 활용하기로 하였다.

연구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사할린 한인 1세대에서 나타나는 강렬한 고국지향성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러한 고국지향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왜 그토록 고국에 돌아오고 싶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답을 구하고 싶었다. 물론 모국이기 때문에 돌아오고 싶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미 모든 삶의 터전을 사할린에 둔 상태에서 가족과의 생이별을 감수하고라도 돌아온 그들의 결정은 다른 국가의 재외동포들과는 분명 차이가 나는 점이다. 그리고 막상 영주귀국 후의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는지, 영주귀국 이후의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위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라고 하겠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귀향 그리고 또 다른 이별> 다큐멘터리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대부분 다큐멘터리의 촬영 자료는 방송사나 제작자 개인의 자료로 사장되거나 극히 일부분만 이용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큐멘터리 인터뷰 내용을 제작자가 다시 연구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할린 연구와는 차별화 된다.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방식은 학술적 연구의 질적연구방법과 거의 유사하다. 먼저 촬영 대상에 대한 자료조사를 수행하고 기초면접을 통해 라포를 형성하는 한편 이후 참여관찰, 심층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친다. 다만 다큐멘터리는 편집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의 제약을 가지고 정해진 분량의 작품을 완성시키는데, 극히 일부분의 인터뷰 내용을 사용한다. 이에 비해 학술적 연구는 심층인터뷰의 진술문을 통해 공통된 의미단위를 추출하고 그 의미의 본질을 구조적으로 기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자는 2000년 2월 말에서 6월까지 사할린과 안산을 방문하면서 제작을 진행하였고 다수의 사할린 1세대 영주귀국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당시의 제작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다큐멘터리 제작일정 및 촬영 주요내용

구분	촬영 시기	촬영 장소	촬영 주요내용
1기	2000. 2. 25. ~2000. 3. 2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일대	- 사할린 영주귀국 준비가족 현지 인터뷰 및 입국 준비 - 사할린 공항 이별 및 국내 입국 상황 촬영
2기	2000. 6. 5 ~2000. 6.15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일대	-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 영주귀국자 인터뷰 및 생활 모습 촬영 - 사할린 거주 가족 인터뷰

다큐멘터리 제작에는 총 27개의 촬영 테잎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인터뷰 부분을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에 필요한 인터뷰 부분을 녹취하였고 인터뷰를 진술문으로 간주하여 공통된 의미단위를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사할린 한인 1세대들의 영주귀국 동기와 영주귀국 이후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인터뷰 대상이 되었던 영주귀국자들의 인적사항은 <표2>와 같다.

<표2> 인터뷰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례	성별	출생연도	출생지	세대	비고
1	남	1923년	경상북도	1세대	
2	남	1926년	전라남도	1세대	
3	여	1936년	미상	1.5세대	2의 아내
4	남	1920년	충청남도	1세대	사할린거주
5	남	1924년	경북 경산	1세대	
6	여	1934년	미상	1.5세대	5의 아내
7	여	1922년	경상남도	1세대	
8	남	1920년	경상북도	1세대	
9	남	1954년	사할린	2세대	1의 아들

사례 3과 6은 사할린 한인 1세대의 딸로서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사할린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1.5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성장 후 다른 사할린 1세대 강제징용자와 결혼한 관계로 부부 간의 나이차이가 10년 전후로 좀 큰 편이다. 결혼적령기의 여성이 많지 않았던 사할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가족구성이었다. 이들은 1세대와 삶의 경험을 대부분 공유하는 한편, 1세대의 배우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1세대의 삶에 대한 관찰자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사례 9는 사례 1의 아들로서 유일한 2세대인데 1세대의 삶에 대한 후속세대의 진술을 듣는다는 의미에서 인터뷰 대상에 포함시켰다.

인터뷰 대상자들과는 수 차례의 방문과 면접을 통해 리포를 형성하였으며 그로 인해 비교적 수월하게 솔직한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들이 사용되었으며 인터뷰 진행시 더 궁금한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구술생애사 연구기법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하겠다.

4. 연구결과

4.1. 영주귀국 선택으로 나타난 고국지향성

사할린 한인 1세대의 고국지향성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사건은 바로 영주귀국이다. 1988년 모국방문이 자유로워지면서 비록 소규모지만 영주귀국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였고 자신들을 받아주는 집단주거지를 택하여야만 했다. 2000년 2월 마침내 한국정부가 부지를 제공하고 일본 적십자사가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경기도 안산시에 고향마을 아파트가 완공된다. 이 아파트에 천명에 가까운 사할린 동포들이 대규모로 입주하게 된다.

이들은 왜 그렇게도 돌아오고 싶어했을까? 그들은 수 십 년 동안 일군 모든 생활의 터전과 자식, 손자들을 두고 한국행을 택하였다. 이런 결정은 여건이 가능한 선에서 고국을 자주 방문하는 정도에 그치는 다른 재외동포들의 선택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연구자는 이 점에 주목하여 영주귀국 과정을 중심으로 고국지향성의 연원을 분석하였다.

4.1.1 타의에 의한 강제이주

사할린 이주자들은 모집과 강제징용으로 구분되었지만 사할린에 이주하고 난 이후에는 생활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말기로 갈수록 오랜 시간의 노동과 배고픔, 철저한 감시와 탄압에 시달리기는 매 한가지였던 것이다. 모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끊기고 소식조차 전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서 그들의 처지는 이역만리 타국에 외롭게 버려진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자신의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던 고향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의 가슴에는 모국에 대한 향수가 가득했고 언제나 고국으로의 귀환을 원하였다.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을 ‘원체험’으로 갖고 있었기에 그들의 ‘원체험’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 돌아갈 수 없었던 실향민으로서의 체험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였다(박승의, 2013).

그건 가슴에 배인 회포가 있기 때문이오. 고국땅이 그리워서... 남쪽 하늘만 내다보고 노래부른다는게 그리운 내고향 못간다는 노래, 타향살이 몇 해던고 10년 넘어 한평생을... 그런 노래 있잖소? 나그네 설움 같은 거 노래하고 막걸리 부어놓고 젓가락 막 두들기면서.. 그 때 한창 피가 부글부글 끓어지낼 시절인데.... 그렇게 지냈지. 어느 해든지 한시도 고향 잊어버리는 거 없이...

(사례 1, 남)

일본이 노동력이 모자라서 징용을 했다고... 일본 사람들은 마을마다 몇 명 가라고 명령했어. 한 번 지정되어지면 다른 사람 피해 안 줄라고 올 수밖에 없었지.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 대신 온 사람들이야.

(사례 2, 남)

결국 그들은 조국과 가족을 대신해서 징용에 응한 것일 뿐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이주가 아니었기에 수 십 년 동안 유지해온 고국지향성을 영주귀국이라는 결정으로 표출하였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강요된 이산이 낳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모국으로 돌아가는 결정만이라도 자신이 선택함으로써 지금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에서 소외되었던 자신의 삶의 주체성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물리적인 나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사할린 한인들의 모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착(텐 옥사나, 2010)은 이주의 강제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결정된 이주는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야만 하는 필생의 숙원을 더 강화시킨 것이다. 그들의 강한 고국지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무국적의 유지로도 나타났다.

오랜 세월 많은 한인들은 구 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 어떠한 나라의 국적도 가지지 않는 무국적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련 국적이나 북한 국적을 가지게 되면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어느 때고 고국으로 돌아갈려면 소련 국적을 가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홍웅호, 2018). 무국적자들은 소련에서 민족 언어, 문화교육을 받지 못했고 “숨어 있는 민족차별”을 당했다(박승의, 2013). 임금을 러시아 인들보다 적게 받은 것은 물론 휴가 일수, 노동계약에서도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

옛날부터 고향 간다고 한국에 간다고 패스포트(국적)도 안바꾸고... 러시아 패스포트는 안내고 그냥 지내다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늦게서 러시아 패스포트를 냈잖아요. 그 전에는 무국적으로 있었죠. 한국에 간다고 안 받고 있었어요.

(사례 3, 여)

그만큼 그들에게 고국으로의 귀환은 중요한 문제였다. 무국자일 경우 소련의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러한 불편을 감내하고 생활하였다. 그러나 자식들이 하나 둘 장성해 대학에 갈 나이가 되자 국적문제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둘 수는 없었기에 그때부터 소련 국적 취득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고립무원의 타국에서 무국적을 선택한 그들의 귀환의 지는 매우 강했다고 하겠다.

4.1.2 공동체 정체성으로 확인된 일본에 대한 증오 감정

사할린에 남겨 된 한인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 순간에 바꿔버린 일본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지게 되었고 거의 모든 이가 이러한 감정을 공유하면서 지난 세월을 살아왔다. 3만 명 가량의 그리 많지 않은 인구가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기댈 곳은 같은 민족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울분과 비통함을 공유하였다. 사할린이라는 이국의 외딴 섬에서 그들은 강제징용 이주자라는 공통된 체험과 기억을 갖고 동병상련의 동료의식을 계속 확인하면서 살아왔다. 특히 일본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모두가 공유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었다.

저금했다고 비릉박(벽)에 써다 붙여놓고 돈 한 푼도 안줬어 미쓰비시 탄광이잖아. 하루도 안 빠지고 일했는데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있나? 너무 배고파서 쓰레기통에서 청어대가리 같은 거 주워서 삶아 먹다가 배가 아파서 죽은 사람도 있었어. 지들끼리 다해먹고 개 내치듯 버려놓고 갔어. 일본놈의 새끼들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큰일이야. 개새끼들만큼도 못한 놈들이야. (사례4, 남)

일본사람들의 선전, 억압 때문에 배고프다느니 피곤하다 소리 못한다 말ियो (만약) 하면 선전한다 말ियो. 불러다가 주의준단 말ियो 주의 그냥 말만 하면 일없지만(괜찮지만) 매질이란 말ियो.... ‘못견디겠다’ 라든지 ‘파업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말한 사람은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다코비야’라고 인부 대 여섯명 되면 몽둥이 들고 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일 시키는 데가 있어. 그런데로 쳐넣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 억압에 끄떡 못했지 (사례 1, 남)

(남편이 한국에) 못 나온 게 한이 돼서 일본사람한테 얼마나 욕을 하고 이노무 새끼들 조선 사람 다 테러다 놓고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자나깨나 욕했어. 나오고 싶어서... 자나깨나 나오고 싶어서... 죽기 살기로 한국에 나가겠다고... (사례 6, 여)

또한 많은 한인들은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코르사코프 항구에서의 절망을 공유하고 있었다. 사할린 각지에 살고 있던 한인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코르사코프 항구로 모여들었다.

모국으로 가는 배가 코르사코프 항구로 올 것이고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몇 달, 몇 년을 기다려도 고향으로 가는 배는 오지 않았다. 일본에 이어 조국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엄습했다. 코르사코프 항구에서의 집단 체험도 이들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각인되었다. 결국 일본에 복수하는 것은 오롯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한국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4.1.3 유형지로부터의 탈출 인식과 귀소본능

사할린은 예로부터 러시아에서도 반역죄나 죄수들을 수용하는 유배지로 활용되었다. 극동의 끝, 엄청난 추위와 척박한 환경에서 사할린 한인들은 유형의 삶을 살았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국의 무능을 대신해 받게된 운명의 형벌을 오로지 자신들의 육체로 감당하였다. 그러므로 유형지에서의 탈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자식과 손자를 낳고 살았지만 그곳은 영원한 타향이자 고생의 영토였을 뿐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살았던 따뜻하고 정이 넘쳤던 고향은 아니었다. 오로지 생존의 전장, 그래서 그곳은 언젠가는 탈출해야 할 유형지였던 것이다.

할아버지(남편)가 환장이라, 어떻게든지 갈라고 막... 맨 처음에는 못 가게 해서 안간다 하더니만 나중에는 혼자라도 가겠다 했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병신처럼 (사할린에) 혼자 남아서 뭐하겠나? 그러니 이렇게 따라 나왔단 말이야 (사례 6, 여)

안온다 하는 거 내가 들어서(고집을 피워서) 오자 해서 왔지. 답답하니까 억하(울분) 받혀서 왔지. 둘이 사할린 빠져 나올 때 답답했어. 추운 땅에서 고생하다 가느니 죽어도 우리 땅에 가서 죽겠다. 그래서 기어 나온 셈이지. 여기서 일하러 왔겠어? (사례 5, 남)

유형지에서의 탈출을 통해 지금까지 무너져 있던 자신의 삶의 평형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난 곳에 뼈를 묻겠다는 귀소본능도 강해졌다. 언젠가는 고국에서 죽고 고국에 뼈를 묻겠다는 이야기를 사할린 2세대는 부모세대로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다.

영주귀국 시켜준다 하니까 모두 하는 말이 자, 이제는 하는 수 없다. 거기서 일하고 화려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죽어도 지(자기) 땅에 가서 묻히자. 다 모두 하는 소리가 그거였소. 지 고향이니 까 찾아왔지. 오십 몇 년 동안 참았던 한... (사례 1, 남)

(이별이) 계속 되는 거 봐요. 아버지 어머니 여기 왔고 우리는 거기 남아 있고... 그러니까 또 식구가 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했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머....아버지 생각은 알만 하지만 말로 잘 표현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한 말 있어요. 물고기도 죽으러 자기 (태어)난데 돌아간다고 그 말 했습니다. (사례 9, 남)

사례 9는 사할린 한인 1세대 영주귀국자 사례 1의 아들이었는데 2000년 촬영당시 이미 46세의 장년이였다. 여름이 되면 사할린의 강으로 올라오는 연어를 보면서, 아버지들은 망향의 아픔을 자식들에게 이야기했고 자식들은 그러한 아버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결국 사할린 한인 1세대는 그렇게 피맺힌 한을 가슴에 안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다.

4.2. 반복된 이산의 고통: 고국지향은 가족지향으로

그들은 돌아왔지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했다. 고향에는 이미 부모형제가 세상을 떠났고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에 친인척들도 다수가 고향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혹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반세기만에 고향을 찾아온 사할린 한인들이 터를 잡고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 한국정부가 부지를 마련하고 일본 적십자사가 건축비용을 부담한 아파트가 고국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들은 일생을 자신의 자유를 위해 분투했으나 궁극엔 그들의 의지대로 삶을 살 수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삶은 비극이고 고통이었다. 거기다 더 기막힌 운명은 반복된 이산의 고통이었다. 예상치 못한 비극에 그들은 또다시 절망했다.

눈물이 나와서 낮이 뽕뽕 부어서 죽겠는데... 인제도 전화 받으면 전화 받을 때는 못 울어, 아들이 육한단 말이야. 그렇게 울 거 같으면 당장 나와 버리라고 전화 딱 놓고 가면 운단 말이야. 생전 할아버지도 울지도 않는 사람이 내내 울잖아. 늙어가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자꾸 운단 말이야. 식사하다가도 이거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데 하면서 눈물 뚜다딱 뚜다딱 흘린다 말이야. (사례 6, 여)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들은 평생의 소원이었던 조국 땅에 돌아왔으나, 이제는 사할린에 두고 온 자식생각에 슬프기 그지 없었다.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자식들과의 이별이 이렇게 클 줄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오기는 왔지만 보고 싶고... 내 뿐 아니라 다 그렇지.... (눈물) 사할린 가서 보고 싶지만 돈이 없어 갈 수 있습니까? 2년, 3년 만에 한 번씩 갔다온다 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할려면 돈이

얼마나 비쌌니까? 안 먹고 1년 모으면 갖다올 수 있을까? (자식들 생각하고) 입만 떼면 눈물난다.
기가 차서 말은 못하고..... (사례 8, 남)

그러나 이러한 이별의 고통을 예감하고 영주귀국을 포기하거나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영주귀국자들 만큼 차라리 사할린에 남은 사람들에게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사례 4의 1세대 남성은 영주귀국을 거부하고 사할린 잔류를 선택한 사람이다.

자식들 두고 어떻게 한국을 가냐? 몇 십 배 이산가족이 되는 거지. 한국가면 뭐 할거야. 애들 내버리고 가면 뭐 할거야. 여기서는 손자 손녀 아들 딸 다 매일 찾아오잖아. 손자 손녀 다 놔두고 가면 뭐해. 한국가면 친척 맨날 찾아가면 친척이 좋아하나? 차라리 탄값(난방용 석탄)이라도 보태 주든지..... (사례 4, 남)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영주귀국 사업을 시작했지만 영주귀국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한 사람들은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에게도 당연히 지난날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각국 정부가 영주귀국 사업에 매몰된 나머지 이들을 챙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영주귀국이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국가가 배려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이 다수 발생했던 것이다. 그리고 영주귀국을 둘러싼 견해차이로 사할린 한인들 내에도 이런 저런 갈등이 생겼던 것은 사실이다.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영주귀국 당사자의 입장에서 좀 더 매끄럽게 풀지 못했던 것은 많이 아쉬운 일이다.

한편 사할린에 있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이면 손자, 손녀를 여름방학 때 안산의 부모님 집으로 보내기도 했다. 모처럼 찾아온 손자, 손녀가 있는 집은 이야기꽃이 피고 사람 사는 집처럼 시끌벅적해졌다. 자신의 자손을 다시 보는 이들의 마음은 한없이 기뻐다.

아파트 앞마당에 나가면 아이들이 많이 쫓아다니니까 여기가 사할린인가, 한국인가 생각이 안 들어요. 재들 가고 나면 또 적적해서 한국인가 생각하겠지. 시방(지금) 많이 있으니까 별 차별(차이) 없어요. 반가워서.... (사례 7, 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할린의 자손들이 찾아오지 못한 집이 훨씬 더 많아서 경제적 조건에 따라 삶의 질의 차이가 생겼다. 한국에서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의료보호대상자 혜택만으로는 이들의 생활이 빠듯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사할린과 비교되지 않는 한국의 높은 물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사할린을 다시 방문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체념 혹은 또 다른 비원을 가지게 되었다.

후회는 안돼 후회하면 밋하겠어, 까짓거.... 우리 뿐 이라고 다 그랬는데 자식들 떼내 버리고 다 나왔는데.... 괜찮아. 할아버지(남편) 좋다면 좋아. 할아버지 원대로 해줬으니까.... 난 참말로 나오기 싫었고.... 나오기 싫었지만 할아버지 때문에 따라 나오긴 나왔어. (사례 6, 여)

사할린에서 살 걸 하는 그 마음도 들고 여기 집도 좋지만 죽더라도 개들한테 가서 죽지. 죽어 봐도(죽고 나서도) 개들이 여기 올 수 없지요. 돈도 그렇게 안 되고 돈이 있더라도 마음대로 퍼뜩 안됩니다. (사례 8, 남)

사할린 한인들은 반세기 전 고향과 원가족의 상실로 강한 고국지향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고국지향성은 영주귀국이라는 일생의 사건으로 제한적인 성취를 거두었다. 하지만 또다른 가족 상실이 영주귀국과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그들의 고국지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족지향으로 바뀌었다. 사할린 한인 1세대의 삶의 비극은 고국에 돌아가겠다는 열망을 성취한 순간 그 열망만큼의 또 다른 상실이 발생했다는 데 있다. 강제이주를 당한 사할린에서는 고국을, 막상 고국에 돌아와서는 가족이 있는 사할린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 인생에서 되돌이표처럼 반복된 삶의 고통이자 비극이다.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들은 다수가 집단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여생을 보냈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사할린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들과 같은 동네에서 살아가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결국은 다시 돌아온 모국에서 혼자가 되기 때문이었다. 사할린으로 갈 때 혼자였듯이 이제 삶을 다하고 떠나는 최후의 순간에도 혼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사할린 한인 1세대의 삶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운명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분투한 사람들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한국의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5. 결론

이 연구는 다른 해외 동포들보다 더 강한 고국지향성을 보이는 사할린 한인 1세대를 대상으

로 이들의 고국지향성 연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지를 알아보았다. 사할린 1세대 생존 시에 녹화된 촬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국지향성의 연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 타의에 의한 강제이주가 평생 모국에 대한 동경을 지속시키는 큰 원인이 되었다. 1940년대 사할린 이주자들의 이주형태는 대부분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주의 강제성이 영주귀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둘째, 일본에 대한 증오 감정은 사할린 한인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자신들의 비참한 운명의 원인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또한 강제노동 당시의 갖은 고난과 꺾박에 대한 트라우마는 평생 이들의 의식을 지배하였다. 따라서 사할린 한인들은 일본에 대한 증오 감정과 조국에 대한 향수를 공유하면서 살아왔다고 하겠다. 셋째, 사할린 한인들에게 영주귀국은 마침내 기구한 운명의 유형지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생애 마지막 귀소본능의 실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국의 가족을 대신해 척박한 환경의 외딴 섬에 갇히게 된 그들은 나이와 세월의 흐름에 상관없이 이 ‘유형지’를 탈출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평형성을 복원하는 길이라 믿었다.

사할린 한인 1세대는 자신들의 의지로 영주귀국을 선택했지만 마지막까지 고통과 비극의 운명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한국을 떠날 때 혼자였듯이 인생의 마지막도 혼자 맞아야 했기 때문이다. 사할린을 떠나올 때 그들은 수 십 년 동안 일군 모든 삶의 터전과 소중한 가족들을 포기해야 했다. 일제시대의 이산의 고통이 다시 반복된 것이었다. 강렬한 고국지향성이 영주귀국이라는 일생의 숙원을 실현시켰지만 대신 또 한 번의 가족 상실을 경험해야 했다. 결국 고국지향은 다시 가족지향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숙원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사할린 한인 1세대의 고국지향성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일제강점기 한민족의 고난과 고통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다. 일본이라는 가해국은 물론 모국에서조차도 무관심과 무성의에 의해 버려졌던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질곡을 확인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사할린 한인 1세대에게 제공되었던 영주귀국의 기회가 일방적인 국가정책의 또 다른 형태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과연 영주귀국이 최선이었는지, 영주귀국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형식이나 방법은 없었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 사할린 동포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다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정부가 이주정책을 수립할 때,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간과했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도 여전히 사할린 한인 2세대의 영주귀국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할린 동포들을 단순히 공간적, 지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주귀국에 따르는 정서적, 문화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사할린 한인 1세대의 인터뷰를 통해 역사적 경험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다큐멘터리의 촬영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의 증언이 학술적 결과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향후 다양한 자료를 통한 사할린 한인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로 인한 연구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인터뷰였기 때문에 질문내용의 제한성이 있었고 연구대상 범위의 협소성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박승의(2013)「사할린 한인디아스포라의 민족문화정체성 형성과 변천과정 연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재외한인연구』29권, pp.113-152

박신규·이채문(2016)「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귀환 이후 삶과 적응과정에 대한 분석-부산 정관 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한국민족문화』제40호, pp.3-36

박신규(2019)「두 재외한인의 삶을 통해 본 귀환이주의 특징분석-사할린 한인 S와 중남미 한인 P의 사례를 중심으로」『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제14호, pp.151-173

박재인(2014)「낮선 고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이산 트라우마의 단면-고향을 떠나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C의 생애담을 중심으로」『통일인문학』제60집, pp.31-69

오일환(2020)「박노학의 생애와 사할린한인 귀환운동에 관한 연구」『한일민족연구』제38집, pp.255-306

이소영·윤황(2015)「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선택과 사할린 잔류」『OUGHTOPIA』제30권 2호, pp.161-189

전형권·이소영(2012)「사할린 한인의 디아스포라 경험과 이주루트 연구」『OUGHTOPIA』제27권 1호, pp.135-184

장석홍(2007)「사할린 한인 ‘이중징용’의 배경과 강제성」『한국학논총』제29권, pp.473-502

텐 옥사나(2010)「러시아 사할린 한인의 민족정체성-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홍응호(2018)「구술을 통해 본 사할린 한인의 역사와 삶」『전북사학』제53권, pp.303-328

논문투고일 : 2021년 01월 05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1월 18일
 1차 수정일 : 2021년 02월 09일
 2차 수정일 : 2021년 02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2월 17일

<要旨>

영주귀국 과정에서 드러난 사할린 한인 1세대의 고국지향성 연구

- <귀향 그리고 또 다른 이별>의 촬영자료를 중심으로 -

김연식

이 연구는 강한 고국지향성을 보이는 사할린 한인 1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의 고국지향성 연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사할린 한인 1세대 생존 시에 녹화된 촬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국지향성의 연원은 첫째, 타의에 의한 강제이주, 둘째, 공동체 정체성으로서의 일본에 대한 증오 감정, 셋째, 유형지로부터의 탈출 인식과 귀소본능의 실현 등으로 파악되었다. 사할린 한인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영주귀국을 선택했지만 마지막까지 고통과 비극의 운명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한국을 떠날 때 혼자였듯이 사할린을 떠나올 때도 또 한 번의 가족상실을 경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국지향은 다시 가족지향으로 바뀌게 된다. 이 연구는 최근의 사할린 영주귀국자 연구와 달리 영주귀국 당시 1세대들의 인터뷰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고국지향성의 의미를 세밀히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촬영자료를 통해 새로운 연구대상과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자료를 통한 사할린 한인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하겠다.

A study on motherland orientation of Korean Remigrants from Sakhalin

Kim, Yeon-Shik

This study focuses on the reason why Korean homecomers from Sakhalin of Russia desperately returned to their motherland. To solve the research question I analysed interview footage of the documentary, 'Another Separation', which contains the story of Koreans in Sakhalin. I found three main reasons of the motherland orientation of Koreans from Sakhalin. First, Their emigration to Sakhalin was not decided by their own will. They were forced to leave Korea and work hard in miserable conditions of Sakhalin by Japanese colonial policy. Second, they had kept common hostile emotion against Japan and shared the emotion with other Koreans in Sakhalin for a long time. Third, they had wanted to 'escape' from Sakhalin island because it was a kind of unwanted 'exile place'. These three reasons made Korean remigrants finally decide to return to Korea even though they became very old people over 70s. This study also shows the homecomers went through another tragedy that they had to separate with their children after they had come back to Korea.